

#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지금 ‘국내적 해결’

###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오늘 발표 日 반성 담화 계승 수준 사과 조율 日 기업들 ‘미래 청년 기금’ 조성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내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력이 중요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일본 기업, 특히 피고 기업의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이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도 양국 간에 논의돼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게이단련(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이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련(經濟團體聯合會)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된 것으로 보도했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양국의 미래를 위해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피고 기업들이 동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28일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할지도 관심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다리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이러한 해법은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촉구해 온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용’ 수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것은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의 결단이 한일관계의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역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전향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채널A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후보,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국힘 전대 모바일 투표율 47.51%...2021년 전대 최종 투표율 상회

### 6~7일 ARS 투표 진행

### 최종 투표율 50% 넘길 듯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이 47.5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는 5일 오후 5시 모바일 투표 마감 결과 당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총 39만780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

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대 당시 모바일(36.16%)은 물론 자동응답시스템(ARS)까지 합친 최종 당원 투표율(45.36%)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다. 첫날인 전날(4일) 투표율은 34.72%(29만710명)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6~7일 이를 동안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최종 투표율은 5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된다.

당권주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 경우, 9일 일대일 토론을 하며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거쳐 12일 당 대표를 확정한다. /연합뉴스

## 국힘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오해 문자” 경고

### 김용태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8 전당대회 투표 이틀째인 5일 일부 후보자들이 특정 당원위원회 명의로 보낼 수 있는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해당 후보자 측에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 통해 “어제(4일)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일부 후보자들이 보낸 선거운동 문자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를 당원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올리며 “송파를 당원 문자가 아니다. 아마 허 후보 문자 같은데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서울 송파를 당원이 추천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은 허은아, 김용태로 뽑아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대구 수성구를 당원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 내용의 경우, 문자를 수신한 선거인단이 속한 당원이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당원 책임당원들의 항의가 빚발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대변인 배준영 의원은 오후 당사에서 연회의 후 “일부 후보들의 조치가 앞으로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구두 경고를 했다”며 “해당 당원에게서 주도적으로 그쪽으로 표를 몰아가려고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고 대상은 김병민·김용태·김재원 허은아 후보 등 4명이다. /연합뉴스

## 국힘 “검찰 수사 방해” 민주 “검찰 수사 부실”

### 50억 클럽’ 특검법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수사 방해이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수석대변인은 이날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결국 이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만배 일당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

검사에게 넘겨서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검찰 수사 방해와 이재명 대표 방탄 행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는 특검법만큼은 정치적 편파 수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해왔다. 이러한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혀가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50억 클

럽’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부실 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더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반박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려운가”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론에선 검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정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느냐.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